



Hallyu
World

Creative Place

콘 텐 츠 로 세 계 가 모 이 는

한류월드

| 이유진 (KOCCA 미래전략팀) |

대한민국을 향한 관심이 한류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2012년 외래 관광객이 사상 최대 1,110만 명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한류(韓流)’라는 한국적 전통성과 ‘월드(WORLD)’라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결합하여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자는 비전 아래 2004년부터 한류월드를 추진해왔다.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자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인들이 함께 모여 공유해나가는 한류를 위한 한류월드는 다양한 콘텐츠 산업과 손잡으며 복합적인 관광단지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한류월드는 무엇보다 거리 측면에서 서울중심과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공항이 가깝다는 것이 큰 강점을 지녀 작용하여 어디서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테마파크, 호텔, 방송미디어시설, 상업시설(UEC), 복합시설, 수변공원, 주변문화시설 등 다양한 주요시설을 한 지역에 응집시키며 문화관광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했다. 관광단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중간계획을 통한 리조트형 상업시설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류월드 내 완공되어 있는 <디지털방송콘텐츠제작센터>의 경우 첨단 스마트 빌딩, 친환경 녹색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특히 영상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송출·유통까지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된 최첨단 방송 제작 시설이 대한민국의 방송 콘텐츠 발전을 위해 마련되어있다. 본격적으로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이후부터는 국내 방송국, 프로덕션, 방송 콘텐츠 제작을 원하는 개인들까지 센터의 방송 제작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방송 제작에 대한 전문적 교육 시스템까지 갖추어 대한민국의 방송콘텐츠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한류월드는 기존에 조성이 예정되어 있던 다양한 복합단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초 K-POP 전용공연장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3월 문을 연 ‘대명엠블호텔 킨텍스’의 경우 경기도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그동안 외국인들이 관광 시에 겪어야 했던 숙박시설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특히 체류형 관광객뿐만 아니라 비즈





니스 바이어의 숙박 증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고양시의 다양한 한류관광비즈니스 자원을 접목시킬 수 있어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굴뚝 없는 성장 동력’으로 불리는 MICE산업단지로서 한류월드의 가능성 역시 시간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MICE산업은 복합적인 관광산업을 포함하며 생성된 개념으로 ‘비즈니스 관광(BT)’의 의미를 함께하고 있다. 한류월드 내의 MICE산업은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 조성 협약 체결로 인해 그 박차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MICE산업은 일반 관광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과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규모가 크며 문화콘텐츠산업과 결합하게 된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류 공공인프라 시설’에는 한류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으며 ‘한류 관광인프라 시설’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 잡을 계획이다. 특히 ‘한류 관광인프라 시설’에는 최근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시설들이 함께 자리 잡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류월드가 우리나라의 한류문화와 MICE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리나 베이 샌드(Marina Bay Sands)와 센토사 리조트 월드(Sentosa Resort World)로 대표되는 싱가포르의 MICE단지 역시 전체 싱가포르의 관광객을 25% 이상 증가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류월드 역시 그 경제적 잠재성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고용창출효과다. 한류월드에 조성될 의료서비스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산업분야가 경기도의 고용창출 증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ICE산업은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함께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가능성이 높게 평가받아왔다.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공연, 쇼핑몰, 사무실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시설 구축을 통해 현재 고양시는 한류월드의 고용 창출 효과를 약 42만 명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북부의 발전과도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이상 한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만 국한되어있지 않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에게도 한류는 이제 대한민국 문화가 구성하는 콘텐츠들의 복합적인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특히 고양시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는 한류월드는 신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MICE산업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류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류의 세계화를 지향하기 위해 그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는 한류월드는 앞으로 한류의 미래를 더욱 열정적으로, 풍요롭게 열어갈 것이다.